

남원미술협회 회원전 '예술의 숨결, 남원'

남원 아트센터서 27일까지
7개 분야 작품 120여점 전시

남원시가 후원하고 (사)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지부장 김광길)가 주관한 남원미술협회 회원전 예술의 숨결, 남원 개막식이 지난 17일 오후 4시 남원 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어 남원 아트센터 지하 1층 전시실에서 9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남원시가 후원하고 (사)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가 주관한 남원미술협회 회원전 예술의 숨결, 남원 개막식이 지난 17일 오후 4시 남원 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회원전에는 55명의 미술협회 회원의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공예, 조소, 서예, 캘리그래피 등 7개 분야의 입체 및 평면 작품 약 120여 점이 전시되었다. 개막식은 조이플상상블의 식전 공연과 테이프 커팅 후 전시 관람과 회원 및 내외빈이 함께한 기념촬영이 이어져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광길 지부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여러 장르의 작품이 어우러져 예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회원전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남원미술의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회원전은 전통 있는 지역 예술단체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25)

강패여?

- 오상근 -

외적 면에서도 동식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농악전수관의 이명주와 호암마을의 강 루이자 수녀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동식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렇게 내면과 외면은 동식을 어느 방향으로가 몰아가고 있었다. 동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동식은 그런 자신이 낯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웃음이 나오는 것이다.

"오늘도 좀 도와주실래요?"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루이자 수녀가 동식을 불렀다.

"병원에 가실 분이 있어요?"

"아니요. 오늘은 영감님이 한번 계시는데 목욕을 좀 해드려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여자 노인 같으면 우리가 씻기는데……"

루이지는 동식을 마을로 데려갔다. 수녀에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만 도와달라 말을 하는 거냐고 물어야 했지만 동식은 묻지 않았고 불만도 없었다. 오히려 수녀가 동식에게 무슨 일인가를 시켰으면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까지 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다. 살다 살다 별짓을 다 해보게 된다. 건달이 다른 사람 몸집을 씻겨주다니.

슬레이트 지붕이 곧 무너질 것처럼 허름한 집에 갇히는 노인이 누워 있었다. 병색이 완연했고 거동조차 힘들어 보였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했고 서툴렀지만 동식은 성의껏 노인을 목욕탕으로 옮겨 목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씻겨줬다. 바다 위시를 문인 타월로 몸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문지른 뒤 따뜻한 물로 씻어냈다.

동식도 아예 팬티만 입었는데 어깨와 팔뚝에 도드라진 문신이 노인의 눈에 거슬렀는지 노인은 자꾸 동식의 몸 여기저기를 슬쩍슬쩍 살폈다. 도저히 물어보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는지, 노인은 동식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강…… 패여?"

에, 나 강패 맞아요. 왜요? 뭐, 불만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물어보면 단정히 이렇게 말해왔다. 불만 있으면 한 대 맞을 거야? 한 대 맞으면 불만이 없어질 거야, 하면서 말이다.

"아, 아니에요. 이 문신 때문에 그러는 거

죠? 그냥 재미 삼아 한 거예요. 해해해."

그러나 노인은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원래 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동식의 문신 때문에 굳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동식은 문신 때문이라 생각했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노인을 다 씻기고 나서 루이지가 환하게 웃으며 수고했다고 말해, 편치 않아 굳었던 마음이 그나마 보슬보슬해졌다.

성당에 가서 점심을 먹은 후 작업장으로 가는데 이번엔 루이자 수녀가 아니라 다른 수녀가 동식을 불렀다.

"운전좀 해주실래요?"

루이지가 수녀가 운전하던 그 승합차를 운전해달라는 것인가. 루이지는 자동차 키를 동식에게 맡기지 않았었는데.

"루이자 수녀님이 무릎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그래요. 내가 해야 하는데 일이 있고 그래서. 루이자 수녀님도 병원에 가야 하니가 아래 마을 노인분하고 같이 좀 검사검사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아침에 루이자 수녀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다. 이곳에서 40년을 넘게 봉사를 하면서 살았다 하니 무릎이 말짱하겠는가.

동식은 흔쾌히 승낙했다. 폐건물 자체를 나르느 것보다는 운전하는 게 낫긴 낫지. "무릎이 많이 안 좋으세요?"

승합차 조수석에 루이자 수녀는 힘겹게 몸을 실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루이지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꼬리를 흐렸다.

"오전에도 도와줬는데, 운전까지 해주시 감사해요."

루이지의 칭찬을 들으니 동식은 몸이 간지러워졌다. 루이지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차를 몰아가 집에서 노인을 부축해서 차에 태운 뒤 고창병원으로 운전해갔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그랑프리 수상자 3명 선정

국내·해외·청년작가 부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이번 제 15회 그랑프리 수상자로 국내작가, 해외작가, 청년작가 부문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전원 합의제 방식으로 진행, 총 1,231점의 출품작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내작가 부문에 선정된 최민철 작품은 한글

서예를 필획의 태세와 안급, 글자의 비름과 기울어짐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자유롭게 전개하면서 전통과 개성을 조화롭게 구현했으며, 미래 한글서예 발전에 귀감이 되는 작품이라 평했다.

해외작가 부문에서는 정라이더(중국)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강한 필획과 장단 변화가 만들어내는 리듬감 넘치는 선을, 먹의 농담과 거친 붓결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조형 변화

를 자유롭게 구사해 예술적 생동감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처음 신설된 청년 그랑프리 부문에서는 김상년(한국) 작가가 수상했다. 한문과 한글서예를 두루 겸비한 탄탄한 기량을 바탕으로 절제된 자유로움, 균형 잡힌 결구와 필획 운용이 돋보였다.

한편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오는 26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장은성 기자

섬진강 미술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순창展' 개최

순창군은 오는 20일부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순창展'을 섬진강 미술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5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동시에 열리는 대규모 서예 행사로, 순창에서는 지역 서예의 정체성과 흐름을 드러내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순창 출신 및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서예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서체와 기법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섬진강 미술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 입장료는 무료다.

/순창=이영원 기자

김희선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난계악학 공로상' 수상

김희선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이 최근 개막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난계악학 공로상'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을 역임하고, 국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악과 월드뮤직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과 국제전통음악학회 동아시아음악연구회장(ICTM/MEDIA chair)을 맡으며 한국음악의 세계화에 힘쓰고, 한국 전통음악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전통음악의 세계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뜻으로 여기겠다"며 "다양한 교류 활동과 홍보 등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희선(사진 가운데)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이 최근 개막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난계악학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1997년 시작된 '난계악학대상'과 '난계악학공로상'은 세종 시대의 음악가 '난계' 박연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 국악 발전에 기여한 학자 및 예술가에게 수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서평 - 문승우 '소년, 대양을 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자전적 에세이 '소년, 대양을 품다'를 출간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군산대학교 고촌관 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책을 좋아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읽고 느낀 소감을 적어본다.

이 책은 한 개인이 파도치는 삶의 바다를 어떻게 헤쳐왔는지,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어떤 대양을 품게 되었는지를 감동적으로 담아낸 귀한 한 사람의 소중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책의 제목처럼, '소년' 문승우가 '대양'을 품기까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선사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 속 명언처럼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문장은 이 책의 핵심적인 철학을 관통한다.

자유의 70%를 차지하며 모든 생명의 출발점이자 생태계의 근원인 바다처럼, 문 의장의 삶은 포용, 생명력, 나눔, 균형의 가치를 보여준다.

1954년 항구도시 군산에서 9남매 중 일곱 번째의 병약한 아이로 태어난 소년 문승우는 가난과 역경이라는 거친 파도를 끊임없이 마주했다.

그러나 그는 약한 몸을 단련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에 매진했고, 특히 태권도를 수련하며 태권도 공인 7단으로 선수와 사범의 길을

"도전,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준다"

지난 삶의 기록·의정활동 등 담아

걸으며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삶에 굳건한 신의와 인간적인 믿음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선물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서도 성공을 이루게 된다.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에는 태권도 명예 9단증을 수여받기도 했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어려운 시절 손을 잡아준 많은 분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그는 세상에 봉사하는 삶을 선택해서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그늘진 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약자의 무기가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더욱더 약자의 편에서 서서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참 정치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그는 제11대와 12대 연속으로 군산시 제4선거구에서 전북도의회에 당선되었고, 현재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도의장으로서 전북 발전을 위해 찬 아침이슬을 마다하지 않고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고 열심히 뛰고 있다.

제11대 도의원 시절에는 초선임에도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의정 능력을 인정 받아왔다.

그의 헌신은 의정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산시 체육회 부회장, 군산시 9대 태권도협회 회장, 전북체육회 이사를 지낸 '타고난 체육인'으로서의 면모와 함께,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초대 센터장, 금강라이온스 회장,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전북본부 홍보대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수많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정한 지역사회 공헌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군산 시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승우 출판기념회



의 장(체육장)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책 '소년, 대양을 품다'는 단순히 한 공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이력서가 아니라

문 의장 스스로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인생사와 분주했던 의정기록을 활자로 남기는 것이 겸연쩍었다"고 고백했듯이, 이 책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여정과 공인으로서의 활

동이 후대에 기록으로 남아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쓰여졌다고 문 의장은 이야기하고 있다.

"도전은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준다. 매 순간이 고난이지만, 달리 보면 매 순간이 도전이다"라는 그의 철학처럼, 이 책은 꿈을 잃지 않고 달려온 한 시골 청년의 도전에 대한 기록이자, 인간에 대한 예의와 신의를 지키며 인생의 바다를 헤쳐온 한 조각배 선장의 감동적인 항해일지이다.

특히 9남매가 많은 집안에서 성장하면서 협동심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이해심을 키웠고, 이제는 약자의 무기가 되는 정치인이 되어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그의 다짐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

책의 전반부는 문 의장의 자라오면서 겪은 인생 기록을 후반부는 의정활동을 통해 전북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 추진했던 의정활동을 기록하였는데 부지런한 문 의장의 열정적인 활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소년, 대양을 품다'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다처럼 넓은 포용력과 비에 젖지 않는 강인함을 가르쳐주며, 희망이라는 뜻을 울리고 함께 즐거운 항해에 나서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 감히 생각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